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빈맥병원과
정밀의료 협력
L2

LG전자
세계 환경의 날 맞아
국내외 활동 펼쳐
L4



신기술로 똑똑하게 스타일은 다채롭게 ‘맞춤 전담’ 골라볼까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KT&G 전자담배 ‘릴(lil)’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릴’ 첫 출시
국내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 이어가

인덕션 히팅시스템 처음 적용한 ‘릴 솔리드’
3가지 흡연모드 기능 장착 ‘릴 하이브리드’
액상 카트리지 사용 필요 없는 ‘릴 에이블’
총 3가지 플랫폼으로 소비자 선택 폭 넓혀

균일한 맛 밸런스, 타격감 강조 클래식 등
흡연모드 등 기능 다양해... 사용 편의성▲



릴 솔리드 3.0▶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이 지난 2017년 첫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T&G는 2022년 1분기, 국내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로 등극한 이래 2025년 1분기까지 선두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편의점 기준으로는 전자담배 디바이스 점유율 약 68%, 스틱 점유율 약 46%에 달하는 등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KT&G는 현재 릴 에이블 2.0, 릴 하이브리드 3.0, 릴 솔리드 3.0 총 3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각 플랫폼 별로 전용 스틱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했고,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고객의 편의성도 강화시켜왔다.

◆‘릴 솔리드’, 성장 초석 마련 첫째 역할 톡톡히 해내

KT&G는 2017년 ‘릴’ (릴 솔리드 1.0)을 처음 시장에 선보였다. 최초의 모델이었음에도 판매량이 급증하며 품귀현상을 보였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힘입어 회사는 6개월 만에 ‘릴 플러스’를 다음 버전으로 내놓았다. 릴 플러스에는 더욱 풍부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듀얼 히팅과 가열정소기능 등을 적용하며 단기간에 기술적인 성장을 보였다.

2020년 9월 출시된 ‘릴 솔리드2.0’에는 인덕션 히팅 시스템이 적용된 첫 제품이었다. 인덕션 히팅 시스템은 끝까지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장점으로 고객들이 원했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적용한 기술이다.

KT&G는 ‘릴 솔리드’를 통해 초기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기술, 디자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흡연모드 전환 기술과 자동 예열되는 스마트온 기능 등이 장착된 3.0 버전으로 판매되고 있다.

◆혁신의 상징 ‘릴 하이브리드’

KT&G는 2018년 12월 ‘릴 하이브리드’를 론칭시키며 국내 전자담배 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릴 하이브리드 1.0은 스틱을 외부에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내부에 별도로 장착하는 액상 카트리지와 함께 작동시켜 연무량을 높였고, 가열 온도를 낮추는 등 고객 관점에서 퀄리티를 향상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현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 2월 출시된 릴 하이브리드 2.0의 경우 전면 디스플레이, 고속충전 등 편의기능들이 집약적으로 추가되었다. 최초 버전 1.0의 출시 2년여 만에 KT&G는 고객 중심의 가치를 강화하는 모습을 이어갔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에 출시한 릴 하이브리드 3.0은 고객의 다양



릴 플랫폼 3종.

/KT&G

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획기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이 적용됐다. 릴 하이브리드 3.0에는 타격감, 연무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흡연모드 전환 기능이 추가됐으며 최근 일본으로 진출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기술혁신 집약체 ‘릴 에이블’

2022년에는 액상 카트리지 사용이 필요 없는 릴 에이블 1.0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되었고, 2024년에는 릴 에이블 2.0으로 풀체인지 되면서 고객 중심 가치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릴 에이블 2.0에는 KT&G의 혁신기술이 집약된 브랜드로 현재 가장 많은 전용스틱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들은 에이블 디바이스 하나로 3가지 카테고리의 전용스틱 제품군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 포인트로 꼽고 있다.

또한 에이블 제품은 균일한 담배 맛을 느낄 수 있는 밸런스모드와 타격감을 강조한 클래식모드를 제공하며 ‘스마트온’, ‘고속충전’, ‘일시정지’ 기능 이외에도 20% 단축된 예열시간과, 추가 퍼프를 제공하는 기술이 탑재돼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멀티플랫폼 전략으로 KT&G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또한, KT&G는 올 1분기 실적발표에서 더욱 다양한 플랫폼 론칭을 겨냥한 ‘모던 프로덕트(Modern Products)’로의 도전 의지를 밝히는 등 새로운 시장 개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업 경쟁력을 높이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Modern Products’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프로축구 서울, 평균 관중 2만9848명으로 ‘폴스타디움상’ 수상 /사진 뉴시스
▲무관 탈출한 손흥민, 토트넘 2025~2026시즌 유니폼 모델

▲‘뜨거운 열기’ 프로야구, 역대 최소경기 500만 관중 기록
▲유승민 회장 등 체육계 “새 정부, 스포츠 향한 관심·지원 당부”

▲고진영 등 출격... LPGA ‘54홀’ 대회 스피릿 클래식 6일 개막
▲조하리, KLPGA 점프 투어서 역대 최대 타수차 우승